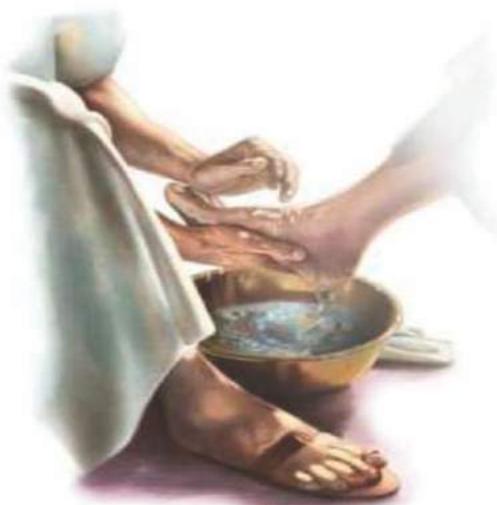


기독의 달
선교 주간

교회 있는 이 교회
김 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더 한 배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봄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믿음의 뿌리를 굽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예배 WORSHIP

February 20, 12:30 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교독문 12번 - 시편 19편

찬송 / 295장 - 큰 죄에 빠진 나를 (1, 3절)
(통일찬송 417장)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기도 / 구 민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현신과 나눔

찬송 / 570장 -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통일찬송 453장)

찬송 / 302장 -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통일찬송 408장)

봉헌 / 죄내권 집사, 유동숙 집사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 출애굽기 6:2-13

현실과 이상이 다를 때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200장 -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통일찬송 235장)

삶과 세상으로

찬양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시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찬양예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골로새서 1:10-13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경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2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한 해의 계획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풍만을 구하는 “기도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말씀과 함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와 더 많은 나눔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의 상을 받읍시다.

2. 선교주간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3. 감사와 은혜의 예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납시다.

4. 12주 사역훈련 안수집사 교육이 재개됩니다.

5.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이번 주부터 모두 참가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6. 토요 새벽기도 토요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시다.

7. 믿음의 뿌리내리기

1) 기도운동 1월 한달 예배 후 새해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2) 예배 공예배 참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변화합시다.

▶ 교우 동정 김성배 목사 이사(2/26 토요일)

▶ 2월의 사역 - 선교주간(20-26), 선교주일(27)

♥ 2월 생일축하 ♥ 유동숙(24) 구민경(28)

기 도 제 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안전과 건강특히, 정홍렬목사, 박진성집사, 최윤정양의 회복과 치유)을 위해
- 교우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업하며 직장에서 일하도록
- 자녀의 신앙교육과 Youth Ministry 2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사역 장소에서 새로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예 배 섬 김 이

주일예배기도	2/13	2/20	2/27	3/6
	김성배목사	구 민집사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주일헌금위원	2/13	2/20	2/27	3/6
	유동숙집사/최내권집사	박진성집사/오정은집사		
주일안내위원	2월		3월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말 쓰 노 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어! 순종했는데 왜 일이 안 풀리지? / 출애굽기 5:15-23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이 땅땅거리며 사는 경우처럼,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실에 권선징악의 흑백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신앙생활도 그러하다. 최선을 다해 순종하지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기도 한다. 해방과 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날 하나님의 말씀에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더 악화된 것처럼, 모세는 순종하는데도 오해를 받고, 충성하는데도 갈등에 직면한다. 하나님은 때로는 악을 허용하시지만, 궁극에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루신다. 혹독한 현실을 이스라엘이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았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풀리지 않는가?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을 때이다.

현실과 이상이 다를 때 / 출애굽기 6:2-13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판이할 때, 나의 반응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난하고 더 나빠진 현실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꿈을 포기했다.**

반면,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확답을 얻었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약속을 재확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말씀요약

현실과 이상이 다를 때 / □□□□ 6:2-13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들의 외침도 들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해방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자,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분노했다. 오히려 불가능한 꿈을 꾸지 말고,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모세가 닥친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컷다. 가진 사명은 무겁고 소망이 없는 듯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더 강한 확신을 주신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민족의 해방을 위해, 값을 치를 의지도 희생을 감수할 마음도 없었다. 모순 그 자체이다. 이스라엘은 잃어버릴 게 없는 노예의 신세에 있다. 착취당하는 노예가 늘어난 노역 때문에 꿈을 버리는 모양새이다. 한심한 모습 아닌가.

그런데 나 역시 꿈을 위한 작은 희생조차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소한 1 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매일 세 시간씩 약 10년 동안 노력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는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장은 때로는 순종이, 때로는 희생이, 때로는 인내와 충성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다시 찾는 모세는 현실은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모세는 현실 앞에 포기한 이스라엘을 넘어선다. 현실에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전진해야 하는 우리의 모범이 된다.

모세는 현실에서 꿈을 이루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판이한 현실을 마주하나 그는 타협하거나 도피하지 않는다. 자신의 뜻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 이 쉽지 않은 과정에 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지 않았던가. 꿈이 없는 인생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 꿈을 꾸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무거운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은 허상이 된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현실의 벽을 뛰어 넘자.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괴로워 하는 대신,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에서 이루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불면증을 이기는 기도

사랑하는 주님,

요즘에 생각이 많아서인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깊이 잠이 들게 해 주시시 옵소서.

꼭 잠을 자야한다는 압박감을 내려 놓습니다.

빨리 잠들어야 한다는 조급함도 내려 놓습니다.

잠을 못자서 내일 하루를 망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까지도
다 내려 놓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의 머리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손길로 저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고

긴장하고 있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떨리는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저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니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조건도 묻지 않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와 함께 하시며

제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운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 6:34)

예, 주님!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를 내려 놓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내려 놓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지친 마음에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저를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예민해진
제 마음을 둔감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의 소리들을 무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짜증나게 하는 것들로부터 무감각해지고
무심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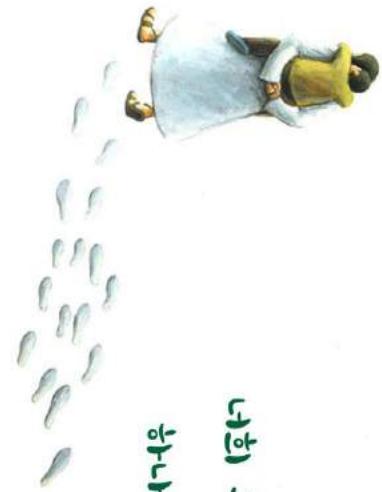
모든 불면증을 치료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민해진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운 마음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긴장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 면역력이 올라가고 호르몬이 균형을 찾고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깊은 숙면을 취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잠 3:24)
장재기, <따라하는 기도>



“모든 것도 영락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강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사건에 푸아~
하나님의 땅(이 그곳)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사라라.”

벧전보복 4:6-7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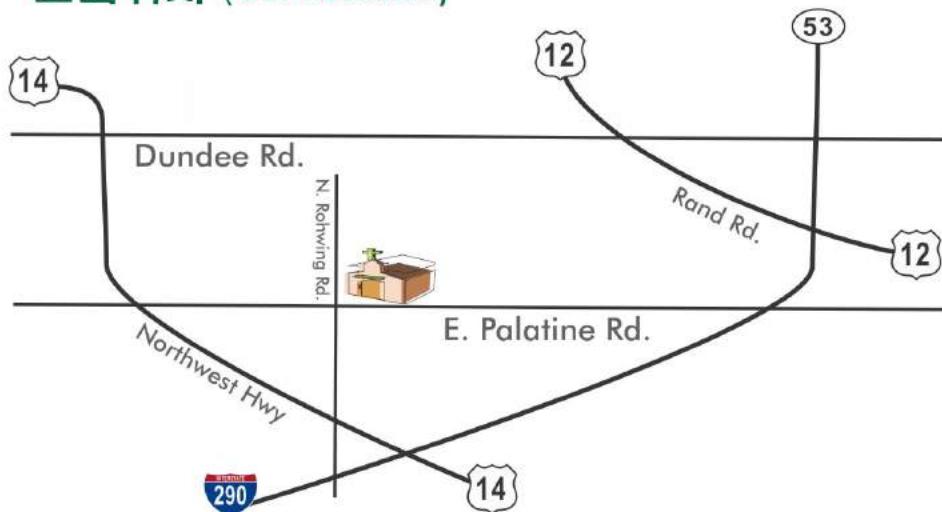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